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사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결정되다

어제인 3월 26일, 2015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대회에서는 학교가 통보한 학과 통폐합과 입학 정원 감축안에 대한 열띤 논의와 투쟁 결의가 줄을 이었다.

학생회 대표자들은 '효율'과 '경쟁력'의 잣대를 들이대 학문을 재단하고, 학생들의 정당하고 절절한 목소리를 뻔뻔하게 외면하는 학교를 규탄했다.

학교 측과 대면해 본 몇몇 대표자들은 그간 들어온 치욕적인 말들을 폭로했다. "너희 과 없어진다고 손해 볼 것이 있냐, 좋게 좋게 가자", "과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나서서 주는 도움 안 된다. 어른들이 정한 일인데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말이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의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자

1. 학교는 '교육의 질'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학교는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사 개편을 한다고 한다. 하지도 않은 "반값등록금"을 운운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위선이다. 건대 재단과 총장은 각종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학교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려 징역을 살고 성추행까지 저질렀던 박희태를 석좌교수로 재임용 하려는 등 부패한 권력에 줄을 대려고 했다. 이런 학교가 학생들을 위하는 척 교육의 질 운운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학교가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교육 부실화"다!

2. 눈 가리고 아웅 식 미봉책에 속지 말자

학교는 과가 폐지돼도 학과 프로그램이 있으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은 학문을 돈벌이 순위에 따라 줄 세우고 소위 '불필요한 학과'에 대한 투자를 서서히 없애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폐지되는 과의 기존 학업 프로그램을 당장은 유지한다 한들 학교 측 구조조정 논리가 버젓이 살아 있다면 그 '비인기프로그램'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한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학교 측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3. 학교의 알맹이 없는 협상 제스처를 경계하자

학교 측은 투쟁을 먼저 접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우리의 투쟁 대열을 흔들고 동력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 협의체 등 협상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뻔뻔하리만치 불통이고 강경하다.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을 봐도 야금야금 진행된

학사 개편 과정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측이 알맹이 없는 협상안을 내놓고는 투쟁 대열 내부의 논란을 유도하려 한다면, 흔들림 없이 계획한 투쟁을 단호하게 이어감으로써 우리의 물러설 데 없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학사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성패는 단결된 투쟁에 달려있다

전학대회에서는 수많은 학생회장들이 지금이 싸워야 할 때라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단지 눈 앞의 피해를 입은 학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학과 평가제를 시행하면 2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번엔 우리가 아니어도 다음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몇 년 전 학과 통폐합을 경험했다는 두 명의 학생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군대에 갔다 왔더니 과가 없어지고 후배가 없어졌다”, “학교 측에서는 문제 없을 거라고 했지만 했던 약속도 안 지켰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이번에는 진짜로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고 말했다.

실제로 전학대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미 학과로의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학부 혹은 단대 별로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따라서 이번의 학사 개편을 순순히 진행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구조조정의 칼날이 언제 다른 쪽을 향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학교는 학과 평가제를 실시해 이번과 같은 구조조정을 2년 마다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언제든지 누구나 지금의 통폐합된 과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지금은 ‘인기학과’라며 인원을 늘려도 몇 년 뒤에 경제 변동과 취업률 상황이 바뀌면 ‘에이, 인기가 식었네’하며 인원을 줄이고 과를 없애고 명칭을 바꿔버릴 수 있다. 학생들의 처지를 눈곱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 당국에게 우리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칼자루를 계속 쥐어줄 수는 없다.

남의 일이 아니다, 하나로 뭉쳐 싸우자!

학교는 우리가 단결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당장의 폐과 대상인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폐과된 학생들의 투쟁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맞서 끝까지 단결된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나가야 한다. 학생회 대표자들은 전학대회에서 뜨거운 반대 의견을 모아 강력한 투쟁 계획을 결의했다. 앞으로 똘똘 뭉쳐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과 구조조정을 반드시 막아내자!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건국대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

오늘 2시 교육부 장관 황우여가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한국사회가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인문학 죽이기에 앞장서 온 사람이 “인문학이 답”한다는 주제의 강연의 축사를 한다는 것은 코웃음 칠 일이다. 바로 그가 추진한 대학 구조 개혁안이 지금의 건국대 학과 구조조정의 강력한 근거다. 따라서 우리는 황우여의 건국대 방문에 반대하며, 교육부가 학과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